

볼보, 연말 EX90 국내 첫 선... 2030년까지 전 모델 전동화

**볼보자동차 경영진 첫 방문
미래 비전 담은 콘퍼런스 개최
이윤모 대표
“올 판매목표 20% 올린 1.7만대
1100억 투자 전시장·센터 확대”**



볼보자동차 주요 경영진들이 볼보 C40 리차지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고경영책임자 비에른 앤월, 최고운영책임자 하비에르 발레라, 최고경영자 짐 로완,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 이사 이윤모 /손진영 기자

볼보자동차 주요 경영진들이 다함께 한국을 찾아 미래 계획을 소개했다. 안전을 중심으로 전동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포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는 한국 시장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어 뉴 에라 오브 볼보 카스’라는 이름으로 미디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볼보 주요 경영진들이 총출동해 볼보차 미래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고경영자인 짐 로완을 비롯해 최고경영책임자인 비에른 앤월 부사장과 최고운영책임자인 하비에르 발레라 부사장 등 핵심 임원 7명이 자리했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사장과 함께 주요 파트너사인 티맵 모빌리티 이종호 대표도 함께했다. 특히 볼보 경영진들은 아시아 일정에

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며 볼보에서 9번째 판매량을 기록한데다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소비자 요구 사항이 높은 시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다. 짐 로완 CEO는 “25주년을 맞은 볼보 자동차코리아가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9위 시장으로 올라섰다”며 “이를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 시장을 이해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성공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짐 로완 CEO는 볼보를 100년간 ‘헤

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라고 강조하고, 안전을 회사 출발점이자 핵심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동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스티어링휠을 잡지 않는게 더 안전할 때야 도입한다는 입장. EX90에 라이더센서를 전장에 장착하는 이유도 안전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차세대 전동화 모델 볼보 EX90도 올해 말 국내에 처음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출고 시점은 내년으로 예고했다. 이후 매년 전동화 모델을 한대씩 추가하며 2030년에는 모든 모델을 전동화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볼보코리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윤모대표는 올해 판매 목표로 전년 대비 20% 성장한 1만7500대를 설정, 이를 위해 글로벌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짐 로완 CEO는 한 팀으로 돕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11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전시장을 32개에서 39개로, 서비스센터를 32개에서 40개로 늘리며 네트워크 확충도 예고했다. 한국 시장에 관심이 높은 이유도 들었다. 자동차가 이제는 달리는 컴퓨터가 됐기 때문.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티맵모빌리티와의 긴밀한 협력도 이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 CATL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도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국내 커넥티드 서비스도 확대한다. 티맵모빌리티는 앞으로 인카 페이먼트와 웨이브 등 OTT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정보와 결제 등 전동화를 겨냥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자율주행을 대비한 고정밀 지도 제작도 이어가고 있다.

볼보는 글로벌에서 성장도 예고했다. 그동안 연간 생산량이 70만대 수준이었지만, 슬로바키아에 연간 25만대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오픈하는 등 연간 120만대 이상을 목표로 생산량을 확충하는 중이다. 사회 공헌도 이어간다. 2025년까지 50억원 기부금을 유치하는 등 ‘스웨디시웨이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 푸르메 재단 후원과 ‘헤이 플로깅’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추가로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볼보자동차에게 한국시장은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징적인 마켓이며 이에 국내 고객의 만족도와 질적 성장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며, “Volvo EX90 공개 등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 계획에 맞춘 리차지 라인업 강화를 비롯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등 안전과 인간 중심의 가치라는 볼보의 철학을 고객의 삶(Volvo For Life)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방화문 제조’ 中 適 合 業 種... 대기업 제동

**동반위, 동국제강·경동원 등에
신규 진입·확장 자재 ‘권고’
온라인 플랫폼 평가제 마련
‘신동반성장’ 모델 발굴 추진**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등 동반성장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 63컨벤션에서 제74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화재시 추가확산을 막는 약 1조원 규모의 ‘방화문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화문 제조업 진출을 준비하거나 영위하던 동국제강, 경동원, 아주엠씨엠 등 대기업은 향후 3년간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추가 확장하지 못한다. 동국제강은 방화문 제조를 위한 설비에 약 140억원을 투자하는 등 관련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경동원은 경동나비엔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경동그룹 소속으로 산업재, 환경재, 건축재, 난방제어 시스템, 홈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주스틸이 대주주인 아주엠씨엠은 방화문 및 관련 소재, 엘리베이터 소재, 건축내외장재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 63컨벤션센터에서 제74차 동반위 본회

의를 열고 ‘방화문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위의 권고 내용엔 ▲대기업 생산 시설 확장자제(대기업 각 사별 4개 라인 초과 증설자제) ▲대기업의 방화문 업체 인수합병(M&A) 자제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됐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의회’를 구성해 방화문 제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반기별 1회씩 논의하고, 적합업종 협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권고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화문 제조업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3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계획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추진 현황 ▲202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 등의 안건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신(新)동반성장’ 모델 발굴과 다양한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 협약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 평가제도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구축도 지원한다. /김성호 기자

두산밥캣, 건설장비 ‘전기 로더’ 첫 선

‘콘엑스포 2023’ 전시회에서 2종 공개



두산밥캣이 현지시간 14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건설장비 전시회 ‘콘엑스포 2023’에 참가해 전동화, 무인화를 비롯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밥캣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는 세계 3대 건설장비전시회 ‘콘엑스포 2023’에 참가해 전기 로더 콘셉트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콘엑스포는 3년 주기로 미국에서 열리며, 14~18일 열리는 올해 전시회에는 전 세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여 개 건설장비 업체가 참가한다. 완성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건설장비 업계에서도 최근 화두는 전동화, 무인화 기술이다. 두산밥캣은 이번 전시회에 2043㎡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첨단 전동화 장비와 무인 디지털 기술을 전시한다. 개막일인 14일에는 엔진 없이 전기로만 구동하는 전기 로더 콘셉트 모델 2종을 처음 선보인다. 전기 로더는 탄소 배출이 없고 소음이 현저히 적은 게 장점이라고 두산밥캣은 설명했다. 두산밥캣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조종 시스템 ‘맥스

컨트롤’과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활용한 ‘머신 IQ’, 인텔리전트 컨트롤 등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선보인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똑타’로 대중교통 활성화

경기도와 협력해 대부도서 개시
현대자동차가 경기도와 협력해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와 경기도교통공사는 안산시 대부도 전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를 시작한

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셔클’을 MaaS(Mobility-as-a-Service)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여 경기도교통공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작되는 통합교통서비스는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수

요응답형 교통수단 기반의 통합서비스를 경기도 전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총 6개 지역에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똑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는 경기도교통공사가 운영한다. 똑타는 현대차가 셔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기도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양성운 기자

SK시그넷 ‘완속부터 초급속까지’ 라인업 공개

‘EV트렌드코리아 2023’ 참가
SK시그넷이 국내 최대 규모 전기차 산업 박람회 EV트렌드코리아 2023에 참가해 완속 충전기부터 신제품 V2를 포함한 초급속 충전기까지 충전기 풀 라인업(Full line-up)을 선보인다. SK시그넷은 전기차 초급속 충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 C홀에서 진행되는 EV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충전 기술력

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CES 2023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V2 제품은 단일 포트에서 최대 400kW까지 출력이 가능해 15분만에 20%에서 80%까지 완충이 가능하다. V2제품에 탑재될 파워모듈은 기존 제품 대비 전력효율이 개선되고, 부피를 39% 줄여 충전기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충전기뿐만 아니라 초급속 충전기의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의 차세대 실제품들도 같이 전시된다. /허정원 기자 zelkova@